

## 안양천 자연형하천 복원의 진행과정과 남겨진 문제들 (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안명균 )

안양천은 1990년대 초반까지 전국 최악의 오염을 보이던 하천입니다. 90년대 초반 198ppm까지 오염되었던 안양천은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유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노력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안양천은 서울 구로공단 옆을 흐르던 오염하천의 대명사에서 자연이 살아있는 생태통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는 안양천을 인간만의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되살리려는 여러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희망을 보여준 안양천 살리기네트워크의 창립 축하시를 되새기며 글을 시작하려 합니다.

### 승어와 함께 돌아오는 길 김영래(시인)

안녕. 당정천의 꼬마물떼새야.  
하천 둔치 모래밭에 숨겨놓은 여섯 개의 알들은  
모두 무사히 부화하였니?  
안녕. 학의천의 피라미와 쇠백로야.  
수량이 흠족치 못했던 너희들의 봄 여름 가을,  
매말랐던 만큼 치열했던 한 해가 가고 있구나.  
안녕. 모두들 안녕.  
나는 강으로 간다.

삼막사 골짜기 바위 틈에서  
그토록 뿌리 싹하게 꽃을 피우던 도라지,  
잊을 수 없구나.  
수리산 작은 골 따라 흐드러지게 피어 있던  
참취 곰취 미역취 그 또한.  
관악산의 회양목, 백운사 골짜기의 애반딧불이들아.  
너희들도 모두 잘 있으렴.  
나는 한강을 지나 바다로 간다.

숨쉴 수 없도록 폐수가 흘러드는 많은 날들에  
손목을 굽고 웅덩이로 주저앉고 싶었지만,  
눈멀고 귀 먹은 채 시멘트 땅굴을 따라  
불가촉 천민처럼 복개 구간을 지나도 왔지만  
이제는 안녕. 평촌 산본 신도시들아.  
맑은내와 흐린내가 만나는 금정역 인근 공장들아.  
비산대교 아래의 합수(合水) 지점과  
안양 새 역사(驛舍) 주변에 창궐하던 고층 아파트들아.

한강을 지나면 강화 바다.

함경남도에서 발원한 임진강과 합류하는 곳.  
석모도 교동도 에돌아 서해에 이르면  
가슴에 지려 오는 해감내와 너른 갯벌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리.  
그렇지만, 그럼에도 잊지 않으마.  
너희들, 안양천의 한살이, 못 산 것들아.  
빛과 더위의 비늘로 온 누리가 지느러미 치는 여름이 오면  
송어와 함께, 은어와 함께, 참게와 함께  
꼭 다시 너희들을 만나러 올게.  
바다에서 먼 강과 하천을 거슬러.

## 1. 안양천 유역 현황과 특징

안양천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발원하여 안양시, 광명시를 거쳐 서울시의 구로구, 영등포구등의 도심지역을 지나 한강으로 유입된다. 안양천의 길이는 32.2km이며, 주요 지천은 상류지역부터 왕곡천, 오전천, 당정천, 산본천, 학의천, 삼성천, 목감천, 도림천 등이 있다.

안양천 유역에는 서울시의 7개구 (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 와 경기도의 7개시 (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부천시, 시흥시 )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유역면적은 1991년 건설부의 발표에 의하면 242.4km<sup>2</sup> , [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의 지목별 토지면적을 기초로 한 계산에 서는 316.9km<sup>2</sup>로 계산되었다.

1990년 초반까지 안양천은 하천이 갖는 3가지 기능, 즉 이수, 치수, 환경 기능 중에서 상류지역의 일부 하천구역을 제외하면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기능만이 존재하였다. 안양천 수질은 1기 안양하수처리장이 완공된 1994년 이전까지는 BOD 기준 198ppm으로 전국최악의 오염도를 보이던 하천이다.

더구나 안양천은 상류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유역이 도시화되어 수질오염 뿐 아니라 도시하천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는 하천이다.

복개되어 사라진 산본천, 수암천 등 수많은 지천들, 도림천에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도시의 건천문제, 거의 모든 지역의 하천을 뒤덮은 주차장과 도로들, 초기강우시에 극심하게 드러나는 비점오염원문제, 안양천의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를 어렵게 하는 구시가지의 합류식하수관거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안양천을 살리려는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난관이었다.

## 2. 안양천 살리기의 시작 - 수질개선과 시민운동의 시작

이런 조건에서 1994년 안양1기하수처리장의 건설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안양천수질 개선의 시작점이 되었다.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함께 진행된 상류지역의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학의천을 중심으로 한 상류지역은 부분적으로 3등급 수준의 수질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사라졌던 물고기가 되돌아오는 변화들이 생겨났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도 안양천 살리기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90년대 초반 안양YMCA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안양천 생태조사등이 진행되어 안양천의 희망을 되살리고, 안양천 주변의 공장과 학교 등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정화활동도 시작되었다. 학의천 주변에는 안양시와 환경부등에서 설치한 수질정화 시범시설 등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안양천 살리기 시민운동은 1997년에 이르러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되던 안양천 지천복개를 막아내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예산까지 확정된 안양시 수암천복개계획을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등 안양시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 막아낸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안양천 살리기 운동은 10년만인 2007년 수암천 기존복개구간의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이라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 3.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 결성

안양천 유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활동하던 시민단체들은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류와 하류에 사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1999년 그동안 각 지역에서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 각자 노력해 오던 시민환경단체들이 힘을 합쳐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하여 결성된 조직이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이다.

현재 시민환경단체만이 아니라 관심을 가진 기업체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까지 결합하여 26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는 출범 초기부터 안양천 살리기 광역(유역)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안양천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안양천 살리기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안양천 유역의 시민과 청소년이 안양천 살리기에 관심을 갖도록 [ 안양천생태탐사지침서 발간] [안양천으로 떠나는 여행-교육용비디오 제작] [ 홈페이지를 통한 안양천유역 모니터링 활동 ] [ 안양천유역 자전거 대탐사 ][안양천하룻밤캠프와 보트탐사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 4.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여러 기관의 노력

전국 최악의 오염을 보이던 안양천은 2000년대 들어 2기 안양하수처리장의 준공과

하수관거정비, 부분적인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수질과 생태측면 모두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상류지역인 학의천의 경우 평균수질 2-3급수를 유지하며 여름철에는 아이들의 물놀이 공간으로 변모하였고, 하수처리장 하류의 안양천 국가하천구간은 수천마리의 거울철새들이 해마다 날아오고 있다. 더구나 2004년부터는 안양천 하류의 년 평균 수질이 4급수 정도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다.

상류지역 안양천오염의 상징이었던 군포공단안의 안양천구간도 수질이 개선되어 물고기가 살아가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안양천상류의 지방2급 하천구간은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모두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와 자연형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하여 미흡하지만( 특히 자연형하천 정비구간에 주차시설의 존치, 산본천 수암천등의 복개문제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수질개선대책협의회 활동을 통해 상류와 하류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안양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은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안양천의 상류지천인 학의천에 자연형하천 시범구간이 설치된 후 이 성과를 받아 2004년에는 학의천 전체가 자연형하천으로 복원되었다. 2005년부터는 안양천본류구간의 자연형하천복원이 의왕시 상류구간부터 안양시 구간까지 진행되어 2007년에는 안양천 본류의 군포시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자연형하천으로 복원되었다.

그 동안의 자연형하천 복원이 상류지역의 지방2급하천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2007년부터는 안양철교에서 서울시의 금천구에 이르는 국가하천구간의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2기 국가하천 자연형하천복원 사업구간(광명시-한강합류부)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12년까지는 일부 지천을 제외한 안양천 전구간의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게 될 것이다.

## 5. 안양천 자연형하천 복원 과정의 갈등과 민관 협력

안양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과정은 전체 유역이 서울과 경기도의 14개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는 복잡한 사정과 지방2급하천과 국가하천으로 구분되어 관리의 주체가 다른 점 등 갈등의 원인이 다양한 실정이다.

특히 상하류 지자체간의 갈등, 국가하천 자연형 하천복원 과정에서 지자체와 건교부간의 갈등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지자체를 비롯한 사업주체와 시민들 간의 자연형하천 복원에 대한 관점 차이도 주요한 갈등의 하나이다.

특히 안양천의 국가하천구간인 서울지역의 자연형하천 복원과정에서 체육시설 등 시민의 이용공간을 최소화하려는 시민단체와 건교부의 방향에 대해 몇몇 해당지자체는 건교부의 권고도 무시하고 맹공이 서식지역에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등 갈등을 부추기기도 하였다.

어린 복잡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안양천 자연형하천 복원은 커다란 대세로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간의 협력과 해당 기관간의 협력도 더디지만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안양천 상류의 자연형하천 복원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산본천 복원문제도 비록 시민단체가 요청하는 만큼의 적극성은 부족하지만 군포시 도시기본계획에 산본천 복원 내용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안양천 고수부지를 뒤덮고 있던 주차장들도 시민의식의 변화와 설득을 통해 이제 모두 폐쇄되거나 순차적으로 폐쇄하기로 하였다. 2000년부터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에서 요청해온 안양천 조수보호구역 설정 요청은 2007년에 서울시의 안양천 조수보호구역지정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학의천 상류지역의 청계택지개발사업에서도 의왕시와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의 여러 요청 중에 단지 안을 흐르는 청계천의 자연형하천 복원 요청은 주택공사가 수용하여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안양시, 의왕시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요청한 학의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백운호수 의무방류 요청도 농업공사와의 협력으로 하루 2000톤의 의무방류가 실현되었다.

이렇듯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던 근거에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속되온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상하류 시민, 시민단체들간의 정보교류와 연대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안양천 살리기를 위해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모은 [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의 활동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어야 한다.

1999년부터 시작된 안양천 상하류 시민단체의 협의체인 [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 ]와 유역 13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기구인 [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의 활동이 안양천자연형하천 복원과정에서 갈등의 해결주체이자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국가하천구간의 관리주체인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포함된 협력관계를 구성한다면 전국최초로 시민과 관련된 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 안양천유역협의체 ]의 구성도 가능할 것이다.

## 6. 안양천 자연형하천 복원과정에서 남겨진 과제

199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안양천 살리기와 자연형하천 복원은 이제 현실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상류지역에서는 안양천에서의 물놀이가 현실이 되었다. 2012년까지는 발원지인 청계산과 백운산에서 한강합류부까지 자연형하천 복원이 완료될 것이다. 하지만 안양천의 자연형하천 복원과정이 또 하나의 토목공사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지속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1)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안양천 살리기의 구체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

안양천 살리기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의 수행에 있어 시민의 관심과 의지를 모아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질목표 3등급 등 이해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한 일이다. 더구나 현재 안양천은 도시하천 살리기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안양천 유역의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장기적으로 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하자.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에서는 생태통로로서 안양천의 복원을 확실히 하고 시민과 함께 희망을 나누는 목표로 [ 은어가 돌아오는 안양천 !! ]을 제안하고 있다.

## **2) 안양천 하류 수질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안양천 하류의 수질은 목감천 상류의 미처리 하수를 제외하면, 안양천중류지역에 위치한 1-2기 하수처리장의 처리수질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현재 하루 60만톤의 처리요량 중 47만톤 정도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 상류지역의 택지개발에 따라 하수처리량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2007년 고도처리시설이 가동되더라도 5급수 정도의 수질이 예상되고 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기준을 대폭 높이는 노력과 함께 방류수에 대한 인공습지시설 등의 후처리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야 한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 대한 후처리시설로 안양천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역간접축정화시설, 끈상미생물접촉정화시설 등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 **3) 안양천 유역의 주요지점에 대한 조수보호구역 지정 등 생태공간에 대한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하천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거의 유일한 생태통로이다. 현재 안양천에 날아오는 철새들을 보호하면서도 시민의 친수공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양천 전 구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입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일정구간을 생태공원개념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도심구간의 일정구간은 시민의 친수공원으로 활용하는 입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양재천과 같이 전 구간에 걸쳐 거의 일관된 조경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

## **4) 지천을 포함한 안양천 전 구간 자연형하천복원등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유역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안양천 살리기는 각 부분별로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부분계획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안양천이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하천으로 되살아나고 온전한 도심 속의 생태통로

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각 지류와 본류를 관통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한쪽에서는 안양천 살리기를 위해 예산을 투자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양천지천 중 반딧불이 서식지인 양지천을 파괴하는 광명역사개발이 진행된 것은 안양천 유역 전체를 고려한 원칙과 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서울 뉴타운개발계획등 유역의 재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복개하천의 복원, 합류식 관거의 정비, 지하수 함양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사업수행의 주체는 다르더라도 일관된 원칙과 계획이 사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안양천 살리기를 위한 유역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5) 안양천유역에서 현재진행중인 개발 사업에 안양천 살리기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현재 안양천유역에서는 광명 소하동 재개발사업, 청계임대주택단지개발사업, 군포시 당동 등의 택지개발사업, 광명역세권 개발계획, 구로공단 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계획신도시로 개발되었다는 산본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안양천의 한 지류인 산본천은 복개되어 사라져 버렸다. 지금 군포시민과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에서는 복개된 산본천을 복원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번 파괴된 하천을 복원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안양천 유역의 각종 개발 사업에서 안양천 살리기를 염두에 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6) 안양천 유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양천 유역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관된 목표와 계획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상류와 하류의 협력, 치수와 수질 환경에 대한 통합적 고려, 건교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 다른 무엇보다도 행정과 시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이 참가하는 유역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 일본에서는 1997년 이후 각 하천별로 유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유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지만, 안양천의 경우 유역계획( 또는 국가하천구간 하천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협의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안양천유역에는 다른 어떤 하천과는 다른 협의체 구성을 위한 장점이 존재한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시민 조직 간의 네트워크인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인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교부, 환경부 등의 중앙행정조직과 지방자치단체 유역의 시민과 국회의원 등이 함께하는 협의구조를 구성하여 안양천 살리기 유역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 7. 글을 끝내며

현재 안양천의 국가하천 구간에 대한 자연형하천 복원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용역 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안양천의 실정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양천 유역의 현실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용역의 진행과정에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등 유역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이 진행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안양천 살리기 사업이 민과 관의 협력, 지역과 지역의 협력, 중앙과 지역의 협력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